

축 사

(2022 에코포럼 인(IN) 완도)

2022. 10. 12.(수) 13:00 / 완도생활문화센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중희 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에코포럼 인(IN) 완도』 행사를 개최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포럼을 주최하여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전창협** 헤럴드 대표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웰컴 아이엔디 **최미정** 소장님과 (주)보타메티 **신현철**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해주실 교수님들과 박사님 그리고 관련 업체 대표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주신 **윤재갑** 국회의원님, **신우철** 군수님, 완도군의회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과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완도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2017년에 해양치유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 신성장 산업인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지역성장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발전의 전인차가 될 것으로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요법을 통한 의료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완도군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완도 군의회에서도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